



김  
—  
진  
선

강원도 도지사

##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완벽하게 개발한다

강원도는 우리국토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의 모체로, 수자원의 보고(寶庫)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 '제1의 미래자산'은 '맑은 물'이라고 말하는 강원도를 찾았다.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완벽하게 개발한다'는 강원도적인 환경원칙을 갖고 있는 김진선 강원도지사과 명칭부터 강원도의 청정1급수를 보전하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맑은물보전과 안병헌 과장을 만나 '소중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강원도는 국내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때문에 강원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은 맑은 물과 울창한 산림을 보기위해 강원도를 찾고 있어 환경보전, 특히 맑은 물 만 들기에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 짐작합니다. 그간 강원도의 물 관리 현황과 타자치단체에 비해 자랑하실 부분,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터뷰 요청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전국 상하수도인의 기술발전과 화합의 장인 WATER KOREA 행사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상하수도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애쓰고 계시는 협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는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완벽하게 개발한다'는 환경철학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환경보전 3대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첫째, 강원도의 '물' 만은 청정1급수로 유지하는 것. 둘째, 강원도의 우수한 생태환경 자원을 철저히 보전하는 것. 셋째, 시설사업은 비교형량과 경관형성계획을 적용한다는 3가지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간 환경보전 3대원칙을 수립하고 철저히 지켜온 노력의 결과로 강원도의 청정한 수질과 자연환경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ISO14001인증을 획득한 바와 같이 도정의 환경경영시스템은 이미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강원도의 환경과 맑은물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서 2020년까지 강원환경지표의 최고화·선진화를 위해서 '환경수도-강원'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도를 위한 청정 1급수 보전대책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물자원에 대한 가치를 높여서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여건에 맞는 각종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수도-강원' 만들기와 '청정1급수' 보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원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2천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가 강원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과 다름 아닌데요, 두 수원지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며, 우리나라 수자원의 보고입니다. 우리나라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의 모체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에게 깨끗한물을 공급하는 수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맑고 풍부한 물은 강원도만의 것이 아닌 전 국민의 자산이므로 온전하게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실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수자원이 팔당호에 미치는 수질개선에 32.5%나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강수계 유역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맑은물이 팔당호의 수질개선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강원도의 맑은물 보전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식제고도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생명의 물-북한강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북한강, 소양호, 의안호 등에서 민·관·군 합동 정화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민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맑은물보전과의 안병현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의 맑은물 보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안병현 맑은물보전과장을 비롯한 맑은물보전과 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맑고 풍부한 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2천만 주민이 강원도에서 발원하는 물을 먹고 있는 만큼 맑은물보전과의 책임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강원도의 '물' 만은 청정1급수로 유지한다는 목표아래 청정한 수질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자원화 하는데 앞장 서 온 맑은물보전과는 그 공로가 인정되어 사단법인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로부터 '2005년 물관리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마을 상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강릉시가 선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물은 강원도의 대표가치로 미래를 담보하는 자원임을 명심하고 강원도의 맑고 깨끗하며 풍부한 물,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 더 애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안

병

현

강원도 맑은물보전과장

“강원도의 청정1급수를 안전하게 보전하여 온 국민과 안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님께서 강원도의 전반적인 환경 정책과 더불어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한 전략사업에 대한 큰 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는 곳이 바로 맑은물보전과라 생각되는데, 도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는 귀과의 조직구조와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광문화국 내의 맑은물보전과는 전체 27명의 직원과 6개의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맑은물보전과의 6개(수질보전, 유역관리, 환경시설, 상하수도, 지하수, 공단지도) 담당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질보전계는 수질보전과 수질오염사고 대책을 세우고 하천·호소의 수질관리, 물관리 GIS 설치·운영, 자연형 하천정화사

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유역관리계는 한강과 낙동강 등 수계 수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수계관리 기금,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관련 업무와,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폐수 관련 업무는 환경시설계에서 담당하며 특히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하수도계는 상하수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물 절약 시책 등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지하수계는 지하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고 있으며, 관광지가 특히 많은 우리도의 특성상 온천개발 승인과 먹는 샘물 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내 수질1종 배출시설과 한강상류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업무를 맡은 공단지도계까지 모두 6개의 담당부서가 오늘도 강원도의 맑은물 지킴이를 자처하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강원도는 '맑은물보전과'라는 부서명을 쓰고 있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때문에 책임감도 남다른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타 자치단체의 유사부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소개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 및 상·하수도 관련 부서명칭으로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질보전 또는 수질관리과, 상하수도(관리)과라고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는 '맑은물보전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정1급수를 보전하기 위한 강원도의 노력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6년, 조직 개편 시 기존의 환경부서인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를 통·폐합하여 3개부서로 확대하면서 '맑은물보전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보전과가 폐지되고 현재의 환경정책과·맑은물보전과 체제로 환경관련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맑은물보전과는 이후, 3개 담당(계)이 신설되어 현재는 6개 담당, 총 27명의 직원이 강원도의 '청정1급수'를 지켜내고 공급하기 위한 맑은 물 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수질관리와 상·하수도 관련부서를 '맑은물보전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강원도의 맑고 풍부한 '청정1급수'는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자원인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먹고 마시는 식수의 원천으로 반드시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줘야 한다는 강원도민 전체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수질보전 및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했던 우수 실적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고 새롭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 물은 뉴 밀레니엄시대 강원도의 '제1의 미래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완벽하게 개발한다'라는 강원도적인 환경원칙 아래 '청정1급수' 유지·관리를 위해 '맑은 물 보전 종합대책'을 도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보전시책에 대해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 1급수 보전대책과 청정 수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노력,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청정 1급수 보전대책으로, 첫째, 한강상류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을 들 수 있습니다. 한강 상류 고랭지밭, 공사장 등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와 흙탕물, 비료·농약 등 난분해성 유기물과 영양염류에 의한 수질오염 저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흙탕물 발생 사전예방체계 강화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둘째, 하천·호소 등 차별화된 청정수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퇴적오니 준설, 식생대 조성 등 자연형 하천정화시설 설치로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하천·호소의 수질상태 및 오염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관리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기초시설을 단기간에 집중하여 확충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오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능력과 처리효율 증대를 꾀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염물질의 부하저감 향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6,131억 원을 들여 모두 17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충하는 등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다목적댐 상류에 하수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수원의 수질 조기 개선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소양강댐·충주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하수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IT(정보기술)와 ET(환경기술)를 접목한 시스템으로 사업추진과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기술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두 4,6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0년까지 7년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수질오염저감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설치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까지 모두 75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청정1급수 보전대책에 따른 청정 수자원 가치제고를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강·낙동강의 수계관리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청정수질보전 노력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확보해 수자원가치를 향상 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미래자원으로 손꼽히는 청정수가 고부가가치화 될

에 따른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강구, 수계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565억 원을 확보,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관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 및 보전에 있어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보하려는 노력입니다. 현재 관리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시·군별 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해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폐수 무단방류 및 희석처리 등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배출 및 방지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200여 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리강화와 기술지원으로 자율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 미보급으로 불편을 겪는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설치,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1,372억 원을 들여 17개소가 설치되었고 금년도에는 119억원을 투자하여 11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2010년까지 농어촌 지역 30개소의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으로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9개소가 설치되었으며 4개 읍지역 지방상수도 시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셋째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물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절수기 설치 및 노후관거 개량 등 누수방지사업을 통해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노후관거 830Km를 개량완료 했으며 24,182전의 불량 계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넷째 농어촌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을 들 수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설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3% 정도 개량 완료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중 도비를 일부지

원하여 마을 상수도 소독기를 100% 설치·완료하고, 이후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확대·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시책의 한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직·간접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맑은 물 공급에 관한 노력을 높게 평가, 지난 2005년 6월에 '2005 전국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리도가 추천한 강릉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와 맑은물보전과는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이라는 환경원칙 아래, 앞으로도 강원도의 여건에 맞는 각종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물의 고장-강원」을 앞당겨 구현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예로부터 수량이 많고 수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하천과 호수, 바다는 물론 대형댐이 함께 하고 있어 다양한 물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종합적인 물관리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보다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타 자치단체에 자랑하실 만한 종합관리 노하우에 대한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크고 작은 258개의 하천과 8개의 자연호소, 국내 최대 규모인 소양강댐을 비롯한 8개의 댐, 푸른 동해바다 등 맑고 풍부한 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의 보고장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은 강원도의 미래자산인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 식수의 원천이며, 휴식처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맑은 물을 반드시 지키고 보전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물관리를 위해 강원도는 「강원환경 Vision 2020」의 장기적인 목표로 「아시아·태평양의 환경수도-강원」을 설정, 「강원환경 가치최고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환경 가치최고화는 다시 말해서 환경자원의「only one」발굴·보전 및 명품화로 청정1급수를 보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목표아래에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형 선진사회 기반구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여러 스키장을 비롯한 레저시설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때문에 대규모 오·폐수에 대한 관리 역시 적잖은 과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폐수 관리를 위해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확대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 맞춰 오수 발생량이 많은 콘도, 휴게소 등 대형 레저시설에 대한 오수 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지난 90년부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정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270억원을 투자하여 85개소에 하루 14,95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점검결과 문제점이 도출된 시설물은 지속적인 개선 및 보수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뛰고 있습니다. 이에 맑은물보전과에서도 적잖은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고 계획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2014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와 강원도민 전체가 염원하는 세계가 한데 어울리는 성대한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특히 맑은물보전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예정지역은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지역이고, 최근 올림픽은 환경을 바탕으로 치루어 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계스포츠벨트권역의 4개 하천(송천, 한강, 평창천, 주천강)유역의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2005년 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권역 내 수계별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수질상태·수중생태계 변화, 고랭지 흙탕물 저감 최적관리대책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맑은물보전과는 수질개선과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세부 추진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수질보전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할 파트너이자 협회의 사업자 회원인 귀 도에서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임에



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상하수도분야 선진화와 관련 종사자들의 기술 발전 및 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하수도에 관한 전문기술 개발 및 경영기법 향상을 위한 노력과 상하수도 기자재의 규격 표준제정 및 품질인증사업,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실시는 그동안 상하수도 관련 종사자들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WATER KOREA 행사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기업체 종사자들의 기술발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회원의 입장에서 볼 때 협회는 지자체와 관련 기업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분야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연구·조사 노력과 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제공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상하수도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국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기에 지자체나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협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맑은 물 지키기와 환경보전, 물 절약시책과 더불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우리의 맑고 깨끗한 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